

구원받은 자의 특징

[요3:9-21]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도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9-21절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을 아주 선명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선언 앞에서 그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며 영적인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며, 그의 체면과 신학, 그리고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사역을 오래 했을지라도, 여전히 ‘거듭남’과 ‘구원’의 본질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복음 이전에 직면해야 할 진실

예수님은 먼저 니고데모가 붙잡고 있던 신학과 안전지대를 흔드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시며, 문제의 핵심이 지식 부족이 아니라 “증언을 받지 않는 마음”에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곧 ‘땅의 일’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의 비밀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선포하시며, 구원의 길과 기준이 사람의 공로나 종교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민수기 21장의 뱀뱀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광야 길이 너무 힘들고 고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고, 그 결과 뱀뱀에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시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나 뱀뱀에 물려 있었고,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살 길은 단 하나, 자신이 뱀뱀에 물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뱀뱀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장대에 들린 뱀이 곧 십자가에 들리실 자신을 예표하는 것임을 밝히십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진정으로 붙들기 이전에 먼저 “나는 죄로 인해 멸망할 자”라는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멸망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로는 들려도, 실제 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2. 구원받은 자의 특징

이제 예수님은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은 죄로 인해 이미 멸망과 심판 아래 놓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화를 내며 내리치신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준비하신 구원의 다리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막연한 ‘보편 구원’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조건을 통해,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실체가 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나 스스로는 멸망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붙드는 인격적인 의탁입니다.

18절 이후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심판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재판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

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의 이유는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왔는데도, 자신의 악을 숨기고 싶어서, 죄를 포기하기 싫어서, 어둠을 더 사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을 나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죄와 상처와 추함이 드러날까 두려워 숨습니다. 모임을 피하고, 말씀이 날카롭게 다가올수록 방어하고, 결국 어둠 속에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반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드러나기 싫고,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죄를 인정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옵니다. 그 자체가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너는 스스로 멸망할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만이 네 유일한 구원임을 붙들고 있느냐?” 또 하나, “너는 여전히 죄를 감추고 어둠을 사랑하며 숨어 있느냐, 아니면 두렵고 부끄러워도 빛 가운데로 나오느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완벽함이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께 나아오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의 빛 가운데로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정죄하려 하시기보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십자가의 은혜를 더 분명히 나타내시고, 우리로 그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참된 구원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